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삼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본필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o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번뇌망상, 부처될 거름이요 씨앗”

17면에서 계속

따라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저 영화배우들이 이 영화 저 영화마다 배역이 바뀌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 닮았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지만 자기의 컴퓨터에 자기가 집어 넣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데야 어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내세를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러나 나오는 자리에 되놓으면 녹음테이프가 지워지듯이 그렇게 지워진

고 부처님을 나와 따로 보셔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마음과 주인공 마음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는 이가 드문 까닭

부처님의 무상심심미묘법은 '백천만겁난조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이 귀한 줄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깨달는 이도 드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밖으로 찾게끔 되어있는



그림 · 최주현

“껍데기 아닌 참나는 일체만물과 공생 공식 공용 공심 공체 합니다 그걸 주인공이라 그럽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뭐 놓는다 안놓는다 할 것이 저절로 놓아지지요. 이름을 붙일 것도 없이 말합니다. 착을 놓아라 하는 것도 이름이고 번뇌를 끊어라 하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본래 고정됨이 없이 여여하게 굴러가는 수레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붙잡는다는 놓는다는 없이 그대로 놓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자주 냅니다

해군사관 후보생입니다. 군에 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스님의 책들을 읽고 공부하는 듯 했습니다만 단체 생활을 하다보니 서로간에 마음이 맞지 않는 일도 많고 자주 화를 내게 됩니다. 도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꾸준히 하시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부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무겁게 믿어야 합니다. 내게 안락으로 다가오는 경계는 다 나의 공부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굴 닮았고 무엇을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다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지요. 본래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어서 이 공부하는 내가 죽는 공부입니다만 그럴수록 전에는 불복 놓는 작업부터 길을 들여야 하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경계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나쁜 경계는 돌려서 놓아주세요. 말하자면 좋은 일이거든 '주인공 감사해!' 하고 놓고 나쁜 일이거든 '주인공 잘 되게 하는 것도 너 밖에 없잖아!' 하고 놓으세요.
 이 공부는 내가 속 빠지고 주인공이 앞장을 서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사자(侍者)요 하인이요 몸종인 셈이지요.

관세음보살도 방편인지요

〈관음경〉 〈지정경〉 등의 경전은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 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밖에서 구하지 않고 나의 마음 속에서 찾고 니중에는 그 보살님조차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어떤 경우라도 밖으로 찾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둘이 되어 아무리 벌여 볼수록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편이다 아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나중에는 보살님조차 버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이고 나중이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잘나고 나뉘며 돌아가니 말입니다.
 그래서 친백의 화신으로 나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에 무엇으로든 나를 수 있습니다. 왜지를 건지기 위해 돼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를 건지려면 소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무엇으론들 나뉘지 못하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겐 약사여래가 되어주고 병든 사람에겐 지장보살이 되어주고... 그러기에 부처님은 32 응신이 구족하다고 하는 것인데 중생의 마음에 따라 무엇으로든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덕이 없고 깨우칠 길도 막막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백천만겁이 지나도 깨우치기가 어렵지요.
 부처님께서 네 안으로 너를 발견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구 밖에서 찾으려 드니까 깨우치는 사람이 드물 밖에도

참선하면 수마가 찾아와

참선을 하다보면 번뇌와 잡념은 없어지는데 지구 수마가 듭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럴 때는 잡생각을 하면 관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잠은 소름 놓아주는 꼴이 되지는 않음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리를 깔고 앉아서 밤 먹고 똥 누고 일하고 잠자는 게 다 참선이 아저요.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 다 공부재료라는 말입니다. 고로 생활 그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공부 하겠다는 분들에게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거기에 맡겨 놓고 살라고 일러줍니다. 그것은 이 공부가 내가 죽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산 사람이거나 번뇌 망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내가 살아오면서 입력해 놓은 것들이 연방 솟아 풀려 나오는데 번뇌 잡념이다 하는 게 없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송장이나 목석이겠지요.
 그러나 번뇌다 잡념이다 탓할 게 없습니다. 다만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 놓도 내 잠재 의식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온 자리에 되놓고 가라 이거죠. 번뇌를 걱정하고 잡념을 걱정한다면 그게 또 입력하는 꼴이 될 테니 그래서야 어느 때에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일체는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 거기가 맡겨 놓고 여여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수마가 끼어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놓으세요. '주인공, 잠이 오게 하는 것도 너, 오지 않게 하는 것도 너이니 알아서 하라!' 고 딱 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몸에서 지렁이가 빠져나와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초파일 제등 행렬을 마친 그 날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억어가 우글거리는 연못가 길을 지나고 있는데 억어들이 잡아먹겠다고 소름을 벌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몸 속에서 작은 지렁이들이 빠져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잡아 빼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렁이는 흔적없이 사라지더군요.

꿈도 생시도 둘이 아니라 하신데 그대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살다보면 어디 꿈 뵈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여간 안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참으로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단돈 몇푼을 가지고도 아옹다옹할 양나, 다 같이 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 의자 네 의자를 다투지 않나, 이 건 도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경계가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기가 입력해 놓고 자기가 되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나

를 붙이지 않았고 누구라도 받아주고 응해주시면서 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당연히 불법을 받아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거기엔 아무런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내 한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내 말이, 내 행이 한테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되겠기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잘하든 못하든 내 지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지식으로, 호적에도 올려야 할 테고 잘못된 일이

돌아가지요. 하지만 본래 둘이 아니라 그 책임은 바로 자비의 책임입니다.
 나는 법외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자 여러분이 좀더 분발을 하고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웃을 났다면 세세생생에 깎달리면서 자기 몸을 벗어나지 못할테니 어느 때에 조상의 육은 빛을 갖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온 그 인과의 지옥고를 벗어날 것이며 자기가 뿌려 놓은 자식들을 건져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독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아집이다 아상 아만 욕심 따위를 다 놓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꿈오리든 그것이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 수 있는 불씨가 될테니까요. 가령 번뇌망상이 없고 삼악도가 없고 지옥고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믿으면서 일체를 놓고 들어가야 바랄 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의 의미

옛 성현 말씀에 '너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자신을 알라고 했는지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그것은 고에 속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고 바로 상대가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 자식 형제가 있고, 정처다 경제다 또는 회사가 어떻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나 하나, 이 나 하나에 온갖 진리가 다 서려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싶거든 너 자신부터 알아야겠이지요.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있으니 우주가 있고 내가 있으니 세상만물이 병그러졌 다,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기초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태초에 어떻더라 하는데 태초는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게 바로 태초입니다. 자기가 있어서 모든 게 있으니 자기가 첫번이지요.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안했던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말을 글씨 자기가 제일이라는 말로 알아듣더라 말입니다. 그냥 안하무인으로 아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너는 껍데기인 나로서가 아니라 참 나, 그러니까 나라고 세를 게 없으면서 일체만물과 공생·공식·공용·공심·공체하는 나인 것이지요.
 나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전체와 가설이 되어 있는 한마음의 주인공이지요.
 한번쯤 되짚어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들 나다, 내가 했다 하는데 참나에 아버지가 되었다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고 형제가 되는데 어느 거 할 때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큰 일 할 때를 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몸통이를 기점으로 나라고 할까요?
 우리 몸통이도 비유하자면 집인데 이 집 속에서는 인연따라 모인 수십억의 생명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걸 꼭 집어서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통이 움직이는 거, 한생각 들고 나는 거, 생명의 에너지를 다 뭉뚱 그려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공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한다고 믿어 주인공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빨리 깨달고 싶습니다. 지금 관법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편, 즉 몸을 단련하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가령 그런 방편을 통해 몸 속에 있는 나쁜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깨달음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믿음입니다. 진짜로 믿는 것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통신이 됩니다. 나온 구멍에 진짜로 놓았는지, 그 구멍으로 진짜 들어 왔는지, 그래서 통신이 됐는지 중요하합니다.
 진실로 믿어서 통신이 된다면, 그러니까 대외 소뇌를 거쳐 사대로 통신이 된다면 자기 마음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수습할 것은 수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부처될 자격이 있는데 제 부처를 진짜로 믿는다면 마음은 천차만별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몸을 먼저 생각합니까? 몸따라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따라 몸이 편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잘 될려고 하지도 말고 못 될까를 염려하지도 말고 어차피 믿고 맡길 것이라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충실한 하인이 되어야지 될 때 따지겠습니까?
 하인은 주인이 하는대로 따라갈 뿐이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따지지 마세요.
 주인도 따지지 않는 데 하인이 왜 따지느냐? 그러다가는 종문서에서 풀려 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세요. 믿는다면 말입니다. 아니, 못 믿겠다 싶어도 이치가 그러하니 그렇게만 맡기세요. 종 노릇을 철저히 하라 말입니다.
 예전엔 한번 종이 되면 자식까지도 전부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지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종문서에서 벗어나려면 종다듬게 종노릇을 해야 풀려날 기회를 잡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해보세요. 주인 역할에 끼어들고 참견을 하다가는 그냥 맞아 죽기 십상이지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지도 못하고 주인도 찾지 못하고 마니 자자손손 종노릇을 면할 길이 없게 되고 말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부처, 부처 아닌 부처가 본래 있으니 그것을 진짜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런 지런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그릇 작으면 주어도 못받아” ‘일체만물 하나’ 나 알면 우주 알게돼

은 자리에 되 놓아서 이미 입력된 녹음 테이프를 지우는 수 밖에 없어요.
 생시든 꿈이든 이게 다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놓고 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꿈의 내용이 될까 공금하시다면 그걸 물어서 답을 들려라 하기 전에 나온 자리에 되놓고 관을 해보시게 바랍니다. '주인공, 꿈을 꾸게 한 것도 너, 그 뜻을 알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마음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좋은 꿈이군요.

수계은사가 '책임진다'는 뜻

오래 전에 계를 받았습시다. 지금은 그때 받은 법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수계은사에서 은사신스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새삼스레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불자라면 으레 오계를 받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보편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무겁고 거저있고 깊숙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받는 분이나 증명하는 스님들이나 결코 한테에 떨어지는 말을 해서도 안되고 행을 해서도 안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참으로 비밀스럽고 최상승인 법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시다. 베풀어 주시면서 아무런 이유나 조건

있으면 대신 불참해 가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 끝끝내 없이 살 거라면 세세생생에 끝끝내 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연비를 하는 것은 그런 다짐입니다.
 그러나 오계를 지키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스님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를 받은 분들이 법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어야 오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한 번 한 번 본다면 말입니다. 땅을 치며 울어도 시원치 않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 써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게 많지요?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 응해줍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의 크고 작은 거 가리지 않고 다 응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오고 감이 없이 나뉘며 그렇게 하시지만 다만 여러분의 그릇이 모자라서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 응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니게

그리고 누차 얘기합니다만 일체만물이 본래는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알고 부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른대서야 무엇을 달리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내 탓이다,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다 하는 말을 철두철미하게 들여야 할 겁니다.
 내가 없다면 경계는 다 뭉개졌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흥하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내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도 종비박산을 내는 것도 다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잘 살든 못났든 자기가 자기를 진실히 믿고 일체의 살림살이는 바로 이 껍데기가 아닌 진짜의 나, 주인공이 한다고 믿어 거기가 놓고 거기서 해결하라 이겁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행복을 받음으로써 전체의 행복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버려서 나를 발견하는 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그 아상 아만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나를 몽땅 버리니 몽땅 얻게 되더라' 하는 뜻입니다.

김건배 · 최선옥 · 김수연 · 김수정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576